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정성권*

- I. 서론
- II.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
- III. 복신미륵과 대정현성, 정의현성 돌하르방
- IV.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 V. 결론

국문요약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에는 돌하르방이라 불리는 석상이 있다. 이 돌하르방은 제주도 세 곳의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현재 47기가 전해온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일반 대중들에게도 인기 높은 돌하르방은 그 기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남방기원설, 북방기원설, 제주자생설 등이 제기되었다. 각 주장들은 구체적인 돌하르방의 양식분석 없이 역사적 배경이나 인류학적인 검토를 통해 돌하르방의 기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 세 곳에 흩어져 있는 돌하르방의 양식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복신미륵이라 불리는 석불입상에 대해서도 조성시기를 추정하였다. 복신미륵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석불입상으로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를 밝힐 수 있는 양식적 특성을 갖고 있다. 복신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강사.

미륵과 문헌자료를 통해 제주도 돌하르방 중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조성 시기가 가장 오래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2기의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4기가 몽골간섭기 몽골인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몽골풍 복식을 착용하고 있으며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유사한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제주도, 돌하르방, 복신미륵, 석인상, 대정현, 정의현, 몽골

I. 서론

돌하르방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석인상이다. 돌하르방은 제주도내 3곳의 장소에 분포해 있다. 돌하르방은 제주도 북쪽 제주시내와 제주도 서남쪽 대정읍 인성리 일대 및 제주도 동남쪽 표선면 성읍리 일대에 위치해 있다. 돌하르방은 제주·대정·정의 三州縣城 성문 앞에 놓여 있었던 석인상이다.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돌하르방은 47기가 남아 있다.¹⁾ 제주시내에 21기, 대정에 12기, 성읍에 12기의 돌하르방이 있으며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앞에도 제주시내에서 옮겨온 2기의 돌하르방이 있다. 돌하르방은 성문 앞을 지키며 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수호신적 기능과 더불어 禁標, 경계표지 기능 등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돌하르방이 학술적인 연구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이다.²⁾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돌하르방 기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남방기원설³⁾, 북방기원설⁴⁾, 제주자생설⁵⁾ 등이 논의 되었다. 각각의 설 등은 주로

1) 金榮敦,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文化人類學』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36~38쪽.

2) 鉉容駿, 『濟州石像 ‘우석목’ 小考』, 『제주도』8, 제주도청, 1963.

3) 김병모, 『한국 석상문화 소고』, 『한국학논집』2,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인류학적인 관점과 몽골간섭기라는 역사적 정황 속에서 돌하르방의 기원을 논의하고 있다. 인류학적 관점이나 역사적 상황의 검토를 통해 돌하르방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돌하르방이 사람 형상을 돌로 조각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분석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돌하르방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기존의 논의는 제주도 내 조각적 특징이 다른 돌하르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 없이 기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돌하르방 개개의 조각적 특징 및 양식적 영향관계의 분석 없이 돌하르방의 기원을 논의하는 것은 추상적인 담론으로 논의가 끝날 수밖에 없다.

돌하르방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결국 각 지역별로 생김새가 다른 돌하르방의 조성시기 및 영향관계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내 3곳에 흩어져 있으며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돌하르방은 미술사적 방법론을 통해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각 지역별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나 영향관계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후 기원 문제를 고찰하면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병모는 남방기원설을 제기할 당시 석상문화는 아열대와 열대 해양문화와만 관계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몽골과 유라시아 대륙의 석상이 소개되면서 남방기원설의 진전은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다.

- 4)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江原史學』9, 강원대학교 사학회, 1993 ;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 시기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청대사림』6, 청주대학교 사학회, 1994. 북방기원설은 주로 동몽골 지역의 훈출로와 제주도 돌하르방과의 관계를 논한다. 하지만 제주도 세 지역의 돌하르방이 양식적으로 모두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다.
- 5) 金榮敦, 「돌하르방」, 『朝鮮時代 濟州文物展』,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 강창언 외, 「제주도 石像에 관한 一研究」, 『濟州道史研究』7, 제주도사연구회, 1998 ;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3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230쪽 ; 김정선,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耽羅文化』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33쪽. 제주자생설은 돌하르방을 다른 문화권의 석상과 자세히 비교 연구하지 않은 편이며 제주도 세 지역의 돌하르방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지역별 돌하르방의 양식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에서 가장 큰 석상인 복신미륵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복신미륵은 돌하르방과 조형적 친연성이 있다. 그러하기에 돌하르방의 조성시기와 기원을 고찰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찰해야 할 대상이다. 이와 함께 관련 사료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주도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각 지역별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를 추정한 후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 고찰하였다. 돌하르방의 기원은 필자가 답사도중 진주 대아고등학교 교정에서 발견한 석인상을 통하여 논의할 수 있었다. 이 석인상은 본 논문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매우 유사한 석인상이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돌하르방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석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석인상의 자세한 설명과 돌하르방 기원과의 관계는 본문에서 상술하였다.

II.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돌하르방이다. (그림1·2) 이 돌하르방은 제주읍성 동·서·남문 밖 방어를 위해 S자형으로 만든 진입로에 세워져 있었다. 돌하르방은 S자형으로 만든 길의 굽이마다 2기씩 4기가 세워져 있었다. 이 4기의 석상이 한 굽이를 지키게 만들어 도합 8기가 각 문마다 서 있었다.⁶⁾ 돌하르방은 일제강점기 제주읍성이 훼손되면서부터 원위치를 잃고 제주시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를 논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료가 『耽羅紀年』에 수록된 목사 김몽규와 관련된 것이다. 『탐라기년』은 金錫翼(1885~1956)이 1918년 간행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淸乾隆十九年(1754)에 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翁仲石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다.⁷⁾ 이 기록에 나오는 옹중은 중국 진시황 때 흉노에게

6) 金榮敦, 앞의 글, 1972, 36-38쪽 ; 文基善, 「돌하르방의 美術解剖學的 研究」, 『제주대학 논문집』13, 제주대학교, 1981, 194-195쪽.

큰 명성을 떨친 인물인 阮翁仲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시대 옹중석은 무덤 앞 석상, 길가에 세운 석장승 등을 부르는 용어였다. 1754년 목사 김몽규가 성문밖에 세웠다는 옹중석은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지금의 돌하르방으로 볼 수 있다.⁸⁾

1954년 담수계에서 펴낸 『增補 耽羅誌』 명승고적조에도 목사 김몽규가 1754년 돌하르방(옹중석)을 창건하고 같은 해에 관덕정을 중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⁹⁾ 『탐라기년』과 『증보 탐라지』에서 목사 김몽규가 제주 읍성 돌하르방을 1754년에 건립했다는 내용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 이유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양식이 18세기에 조성된 한반도 남부지역의 석장승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특징은 머리 부분과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돌하르방은 모자의 윗부분이 크게 솟아오른 병거지를 쓰고 있다. 눈은 툭 튀어나온 통방울눈이며 코는 커다란 주먹코이다. 이마는 높게 솟아 있으며 한 줄의 깊은 주름이 이마위에 그어져 있다.

둥글게 튀어나온 커다란 눈과 콧등에 주름이 그어진 주먹코, 높이 솟아오른 병거지를 착용한 모습은 18세기 조성된 한반도 남부의 석장승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한반도 남부의 석장승 중 조성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영암 도갑사의 석장승(1717), 나주 불회사 석장승(1719), 나주 운흥사 석장승(1719), 남원 실상사 석장승(1725) 등을 들 수 있다.¹⁰⁾ 이 석장승들의 얼굴 모습은 제주시내 돌하르방과 유사하다. 특히 영암 쌍계사지 석장승의 경우 장승에 이빨이 표현된 차이만 제외한다면 얼굴 모습이 돌하르방과 매우 닮았음을 알 수 있다.

7) 金錫翼, 『탐라기년』, 瀛洲書館, 1918, “甲戌三十年 清乾隆十九年 牧使金夢奎設翁仲石於城門外”.

8) 김정선,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耽羅文化』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02-206쪽.

9) 淡水契 編, 『增補 耽羅誌』, 名勝古蹟 條, 1954, “翁仲石... 濟州 邑城 東西南三門 外에 在하였고 甲戌 丙子 30년에 牧使 金夢奎가 荆建한 바인데 三門 毀撤에 因하여 2좌는 觀德艇前, 2좌는 三姓祠 입구에 移置되었다. 防禦使 金夢奎..... 翁仲石을 3門城外에 建하고 運籌堂과 觀德亭을 重創하다.”

10) 유홍준, 이태호, 『미술사의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 열화당, 1988, 160-161쪽.



〈그림 1〉 제주읍성 돌하르방
(현 위치 제주 KBS 앞)



〈그림 2〉 제주읍성 돌하르방
(현 위치 제주대학교 정문 앞)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에 조성된 한반도 남부의 석장승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얼굴 생김새는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점은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754년에 조성되었다는 기존의 기록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한반도 남부지방의 석장승이 유사한 얼굴 생김새를 갖게 된 이유는 결국 목사 김몽규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김몽규는 중앙정부에서 부임해 내려온 관리로서 제주 출신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증보 탐라지』에서 알 수 있듯이 김몽규는 돌하르방을 건립한 1754년에 관덕정을 중창하였다.¹¹⁾ 제주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형 건축물인 관덕정을 중창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많은 장인들이 제주도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즉, 1754년에 건립된 돌하르방이 한반도 남단의 석장승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이유는 김몽규에 의해 관덕정이 중창될 때 참여했던 육지 출신 장인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준수하고 잘

11) 각주 9 참조

생긴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는 1754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의 돌하르방 역시 같은 해에 동시에 조성되었다는¹²⁾ 학설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제주읍성과 대정,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양식적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제주도 민속자료 1호인 복신미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복신미륵이 제주읍성 돌하르방보다 대정현성 및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닮은 점이 많고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복신미륵과 대정현성, 정의현성 돌하르방

복신미륵은 제주읍성의 서쪽과 동쪽에 서 있는 석불입상이다. 동자복과 서자복으로 일컬어지며 크기는 2.8m 내외로 제주도에서 가장 큰 석상이다.(그림3·4) 이 두 석상은 제주읍성을 중심으로 두고 서로 마주보며 서있다. 두 불상간의 이격거리는 1.56km이다. 두 불상의 양식은 매우 유사하며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서로 마주본 채 서 있는 모습에서 두 석불이 동시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복신미륵은 18세기 조성된 제주도 동자석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졌다.¹³⁾ 복신미륵이 18세기에 조성되었다는 기존의 연구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754년에 건립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복신미륵이 제주읍성 돌하르방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조형적 유사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만약 복신미륵이 18세기나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면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1704년 이형상이 저술한 『南宦博物』을 통해서도 복신미륵이 17세기 이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은 1702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부임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풍물을 기록한 것이 『남환박물』이다.

12) 文基善, 앞의 글, 1996.

13) 김유정, 『제주 미술의 역사』, 파피루스, 2007, 70-80쪽.



〈그림 3〉복신미륵(동자복)



〈그림 4〉복신미륵(서자복)

이 책의 내용 중에 “지금은 섬 안에 중이나 비구니가 전혀 없다. 사찰 역시 모두 없었다. 제주 성 동쪽에 萬壽寺가 있고 서쪽에는 海輪寺

가 있다. 각각 불상은 있지만 상시 관리자는 없어서 마을에서 한 사람을 정하여 돌보고 있다.(중략) 나는(이형상) 말하기를, 점차 오래 가게 할 수는 없으니, 곧 양쪽 절을 헐어서 公廩을 짓도록 하자”라는 기록이 있다.¹⁴⁾ 이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현재 동자복이 서 있는 곳에는 만수사라는 사찰이 있었으며 서자복이 있는 곳에는 해륜사라는 사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은 만수사와 해륜사가 관리되지 않는 빈 사찰임을 파악한 후 양 사찰을 헐어 관청을 지었다. 이형상이 제주에 부임했던 1702년에 만수사와 해륜사는 훼손되어 있었다. 이러하기에 복신미륵은 18세기에 조성될 수 없었으며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다.

복신미륵은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얼굴 부분에서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눈의 형상을 보면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복신미륵의 눈은 얼굴 표면에서 움기한 듯이 조각되어 있다. 반면에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눈은 눈 주위에 깊은

14) 이형상, 『남한박물』, 푸른역사, 2009, 113쪽.



〈그림 5〉 원정모를 착용한 원대
기마인물상(중국 서안박물관 소장)



〈그림 6〉 원정모를 착용한
원황제(文宗) 초상화

음각선을 새겨 눈이 둥글게 튀어나오게 하였다. 복신미륵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입술선은 부드럽게 휘어져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어 친근하게 웃는 모습이다. 하지만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경우 대부분이 일자로 굳게 다문 입을 하고 있어 위엄 있는 모습이다. 복신미륵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귀의 모습도 매우 유사하다. 복신미륵은 두터운 ‘C’자형의 귀를 갖고 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귀는 두터운 ‘I’자형 귀이다. 이에 반해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복신미륵과 유사한 두터운 ‘C’자형 귀를 갖고 있다.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귀 역시 복신미륵과 매우 유사한 두터운 ‘C’자형 귀이다.

복신미륵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손의 자세 역시 유사한 점이 있다. 현존하는 제주읍성 돌하르방 23기와 정의현성 돌하르방 12기가 취하고 있는 손의 위치는 거의 동일하다. 제주읍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손은 한 쪽 손이 다른 쪽 손 위에 올라간 채 가슴이나 복부에 손을 붙이고 있는 형상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역시 대부분이 두 손을 엇갈린 채 신체에 붙이고 있다. 하지만 대정현성 돌하르방 12기 중 제주도 민속자료 2-35호와 2-41호로 지정된 2기는 양손을 명치 부근에서 서로 마주 대고 있어 복신미륵의 수인과 매우 유사하다.(그림

9·24) 이와 같이 복신미륵은 제주·대정·정의 삼주현성 돌하르방 중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매우 밀접한 조형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신미륵의 조성시기를 파악하면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제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복신미륵의 조성시기는 복신미륵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통해 추정 가능하다. 복신미륵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는 언뜻 보기에 돌하르방이 착용하고 있는 병거지 형태의 모자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복신미륵의 모자는 제주도 돌하르방이 착용하고 있는 병거지 형태의 모자와 차이점을 보인다. 돌하르방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의 형태가 戰笠 형태의 병거지 모자라 한다면 복신미륵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는 圓頂帽과 유사한 형태의 모자이다. 원정모는 元 황제는 물론 귀족들이 직접 착용한 원나라 복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몽골간섭기 이후 고위 관리와 승려들이 착용하였으며 고려 말 조선 초에 유행하였다.¹⁵⁾ 우리나라에서 머리위에 寶蓋라 불리는 모자 형태의 別石을 착용하고 있는 불상은 전국에 81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이 중 원정모 형태의 보개는 제주도 복신미륵과,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수원 파장동 석불입상만이 착용하고 있다.

원정모 형태의 보개를 착용한 불상 중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은 정확한 조성시기가 밝혀져 원정모가 불상의 보개로 유행한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에 대한 연구는 불상 하단과 측면의 명문을 판독하여 불상의 조성시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은 1471년에 조성된 불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⁷⁾(그림 7·8) 머리와 신체의 크기 비율이 거의 1:1에 육박하는 대농리 석불입상과 파장동 석불입상 역시 조선 초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불상이 착용하고 있는 원정모 형태의 보개가 다른 불상이 착용하는 병거지 모양의 보개나 돌하르방이 쓰고 있는 전립 형태의 모자와 다른 점은 모자

15) 이정화,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竝立像의 造成時期와 背景 - 成化7年 造成設을提起하며』, 『불교미술사학』, 불교미술사학회, 2005, 75-76쪽.

16) 정성권,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38쪽.

17) 이정화, 앞의 글, 2005, 94쪽.

의 형태와 모자 꼭대기 부분이다.

돌하르방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는 햇볕을 가리는 모자 챙 부분의 폭이 매우 짧다. 일반적인 병거지 형태의 불상 보개는 머리에 쓰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솟아나 있고 햇볕을 가리는 챙 부분이 매우 넓고 두텁게 만들어져 있다.¹⁸⁾ 돌하르방의 모자나 병거지형 불상 보개의 정상부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이에 반해 원정모 형태의 불상 보개는 그 모습이 실제의 원정모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원정모 형태 보개의 정상부에는 원형 내지 보주 형태의 장식이 조각되어 있어 실제의 원정모를 모방했음을 보여준다. 정상부에 장식이 있는 원정모는 원대 고위직 복식의 하나로써 綜帽라고 불리기도 했다.¹⁹⁾ 원정모 정상부의 장식은 元代 황제 초상화를 보면 모자

정상부에 보주가 솟아오르게 장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6)

과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과 안성 대농리 석불입상, 수원 파장동 석불입상이 착용하고 있는 보개의 모양은 원정모와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정상부에는 보주가 솟아올라 있다.(그림8) 복신미륵이 착용하고 있는 원정모 형태의 보개 꼭대기에도 돌하르방의 모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원형의 모자 장식이 솟아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4) 정상부에 장식이 조각된 원정모 형태의 보개가 유행한 시기는 과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을 통해 보았을 때 조선초기라 할 수 있다. 조선은 승유억불정책을 내세우며 건국된 나라이다. 그러나 세종 말년이후 15세기 후반기부터는 왕실과 대중들 사이에 불교가 다시 흥기하였다.²⁰⁾ 특히 세조대에 들어와 불교가 다시 크게 흥성하였던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세조대에는 오대산 상원사가 중창되었으며 원각사가 건립되었다. 이밖에 유점사와 낙산사 등 세조의 비호를 받은 많은 지방 사찰의 중창이 이어져 어느 시대 보다 佛事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대였다.²¹⁾ 이러한 불교의

18) 대표적인 병거지형 보개를 착용한 석불입상으로는 안양 망해암 석불입상, 양평 불곡리 석불입상 등을 들 수 있다.

19)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 編著,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94, 202쪽; 이경화, 앞의 글, 2005, 76쪽.

20) 한기선, 「조선조 세종의 抑佛과 信佛에 대한 연구」, 『홍익사학』3, 홍익대학교사학회, 1986, 3-61쪽.



〈그림 7〉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그림 8〉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원정모형 보개

흥기는 세조대 이후 성종대 초까지 이어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다시 흥기하였던 불교는 성종대까지는 폐불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성종대에는 『經國大典』이 반포되면서 세조대에 입안된 度僧法과 兩宗, 僧科 등의 규정이 법제화되었고 양종과 승과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연산군대에 들어와 승과가 폐지되는(1504) 등 실질적인 폐불 정책이 단행되었다. 중종대에는 『經國大典』에서 度僧條가 삭제되면서(1516) 법제적 폐불 조치가 단행되기에 이르렀다.²²⁾ 16세기에는 승려의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활동과 인적 재생산이 허용되지 않는 폐불의 위기에 직면하였다.²³⁾ 존폐의 위기에 처하였던 불교는 임진왜란 이후 승군의 활약을 비롯한 많은 노력의 결과 조선 후기에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복신미륵의 조성시기는 원정모를 착용하고 있는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조성시기를 통해 보았을 때 15세기 후반기로 추정이 가능하다.

21) 문현순, 「1450년~1460년대 紀年銘 아미타삼존불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불교미술사학회, 2005, 152쪽.

22) 김용태, 「조선전기 억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朝鮮時代史學報』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10-11쪽.

23) 김용태, 위의 글, 28쪽.

15세기 후반기는 송유억불 정책이 지속되었던 조선에서 잠시나마 불교가 흥기했던 시기이다. 원정모 형태의 불상 보개는 조선 초기인 15세기 후반기에 일시적으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신미륵은 제주읍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서 있다. 즉, 복신미륵은 제주읍성과의 관계 속에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읍성 내에는 제주목사가 거처하며 집무를 보는 제주관아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제주목사는 유교 국가를 지향하는 조선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복신미륵은 억불정책이 강하게 시행되었던 16세기에 제주관아 근처에서는 조성될 수 없었음이 자명하다.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이형상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복신미륵이 있는 해륜사와 만수사는 승려마저 사라져 쇠락한 상태에 있었다. 이후 18세기 초 복신미륵이 세워져 있는 해륜사와 만수사는 이형상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림 9〉 대정현성 돌하르방(2-41호) 〈그림 10〉 대정현성 돌하르방(2-41호)
측면

24) 복신미륵은 일반적인 불상의 모습과 구별되는 외형으로 인해 사찰이 훼손된 이후 마을사람들에 의해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복신미륵이 사찰내에 세워져 있었던 점과 ‘미륵’으로 불려지고 있는 점을 보아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불상으로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정의현성 돌하르방 정면



〈그림 12〉 정의현성 돌하르방 측면

제주읍성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1408년부터이다.²⁵⁾ 제주읍성은 고려시대 이미 성이 축조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처음 축조된 시기는 불분명 하다.²⁶⁾ 제주읍성과 관련지어 조성된 복신미륵은 고려시대 조성된 불상이 아니라 15세기 후반 조선시대 조성된 불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고찰한 원정도 착용 불상의 유행 시기를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과의 조형적 관계 역시 복신미륵이 15세기 후반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현성의 동·서·남문 밖에 4기씩 세워져 있었다. 대정현성은 1416년에 대정현이 설치된 이후 현감 俞信이 1418년에 현재의 자리에 수축하였다.²⁷⁾ 정의현성이 현재의 자리에 축성된 것은 1423년이다.²⁸⁾

복신미륵은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매우 닮았으며 부분적으로 정의현성 돌하르방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귀의 경우 세 지역의 석상이 모두 ‘C’

25) 『朝鮮王朝實錄』卷16 太宗 8年 “濟州大雨 水入濟州城 漂溺官舍民居禾穀殆半”.

26)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5쪽.

27) 李元鎮, 『耽羅志』大靜縣 城郭條.

28) 李元鎮, 『耽羅志』旌義縣 城郭條.

자형 귀를 갖고 있다. 휘어진 귀의 모양은 정

의현성 돌하르방의 귀가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귀보다 복신미륵의 귀와 더 비슷하다. 복신미륵의 조형에 대정현성 돌하르방뿐만 아니라 정의현성 돌하르방 역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복신미륵의 복식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경우 측면에서 돌하르방을 보면 팔이 명확하게 보인다. 하지만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치 도포자락이 흘러내리듯 표현되어 있다.(그림12) 이러한 모습은 측면의 팔이 넓은 도포자락으로 덮여 있는 복신미륵의 모습과 유사하다.(그림4)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복신미륵은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영향이 종합되어 조성된 석불입상이라 할 수 있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성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지역 석상의 조성시기는 각 현성의 축성시기가 상한선이 될 것이다. 대정현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1418년 축성되었으며 정의현성은 1423년 축조되었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성 하한 시기는 복신미륵이 조성되는 15세기 후반기로 볼 수 있다.

IV.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앞 장에서는 제주도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를 살펴보았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문헌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목사 김몽규에 의해 1754년에 조성되었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의 돌하르방은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복신미륵보다 먼저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조성시기는 현성이 만들어진 직후인 15세기 전반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아니라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현성의 동·서·남문 밖에 4기씩 세워져 있어 원래부터 성문 밖을 지키는 수문장이나 수호신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석인상이나 석불입상을 제작하는 전통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제주도에서 어떻게 갑자기

등신대 크기의 석인상이 등장하게 되었나 하는 점이다.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며 잘 알려진 대표적인 석인상으로는 동자석이 있어 돌하르방과 동자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동자석의 경우 대정현성, 정의현성 돌하르방 보다 후대에 만들어졌다. 그러하기에 석인상 등장에 대한 의문점에 답이 될 수 없다. 제주도 동자석은 16세기 육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17세기 이후 제주 묘제에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 동자석은 대부분이 17~19세기에 만들어졌다. 편년이 정확한 207개의 동자석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동자석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만들어졌음이 확인된 바 있다.²⁹⁾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주도내에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이 만들어지기 이전 조성된 것으로 밝혀진 석인상이나 석불입상은 없다고 할 수 있다.³⁰⁾ 제주도에서 가장 큰 석불입상인 복신미륵의 경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정현성, 정의현성 돌하르방 보다 후대에 만들어졌다. 성문 앞에 수문장이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석인상을 세우는 전통은 육지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새로운 전통이 제주도 남부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성문 앞에 수문장 역할을 하도록 만든 돌하르방 24기의 원형으로 보고된 석인상이 제주도내에는 없다는 점이다. 결국, 대정현성,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만들어지기 이전 제주도에는 석인상이나 석불입상을 만드는 전통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에도 등장하지 않는 성문 앞을 지키는 다량의 석상이 15세기 전반에 갑자

29) 강윤희,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0쪽.

30) 하원동 탐라 왕자묘 석상의 경우 제주도 석상 중 조성시기가 올라 갈 수 있는 석인상이다. 하지만 무덤 주인공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석상의 조성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동자석과 비슷한 석상의 크기와 복식 및 손에 홀을 들고 있는 모습 등에서 유교식 장례묘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돌하르방의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할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31) 원간섭기 탐라에는 범화사가 중창되기도 하였다(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2000, 198쪽). 사찰이 중창되고 있음을 통해 보았을 때 탐라에서는 법당 안에 모셔놓는 불상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불상들은 살내에 모셔놓는 불상들이기에 주로 좌상들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돌하르방과 제작기법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석불입상 등은 복신미륵을 제외하면 현재 전해져 오는 것이 없다.

기 등장한 것이 된다.

문화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을 생각했을 때 제주도 돌하르방의 등장은 매우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를 밝히기 어려운 점은 제주도 내에 고대부터 내려오는 석불입상이나 석인상 조각의 전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석상 조각 전통의 부재는 15세기 전반기 등신대 크기의 석인상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원인을 결국 외부로 돌리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가 남방 기원설과 북방기원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 생각한다.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현존하는 문헌자료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에 관계된 것만 존재한다.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관련된 문헌자료는 알려진 것이 없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경우 18세기 유행한 육지의 석장승과 조형적 영향관계가 있다. 하지만 15세기 전반 경에 조성된 대정현성,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은 제주도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문헌자료의 부재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석인상이 제주도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을 풀 수 있는 단초는 구비전승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구비전승의 내용을 역사 기록과 동일시할 수 없다. 하지만 구비전승이 “향유층이 속해 있는 사회·역사·문화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더 압축된 형태로 보여주는 갈래”라는³²⁾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한 단초는 ‘녹핀 하르방’이라는 제주도 전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전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늬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언덕길 위에 퍼렇게 녹핀 노인이 우뚝 서 있는 것이었다. 이에 나무꾼이 바람을 피하라고 노인에게 권했으나 노인은 내 팔자가 하늬바람을 맞으면서 이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고집스럽게 똑 바라보는 눈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티어 서 있었다. 나무꾼이 마을에 내려간 후 걱정이 되어 개장국을 사들고 다시 올라갔으나 그 노인은 나무꾼의 얼굴도 쳐다보지

32) 강진옥, 『전설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화연구』5, 한국구비문화회, 1997, 72쪽.

않고 똑바로 그 고집스러운 눈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나무꾼은 녹핀 하르방에 의해 그 착한 마음을 보상받았고 나무꾼과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사람은 나무꾼의 얘기를 듣고 녹핀 하르방을 대접한 후 그로부터 금은보화를 구했으나 결국 벌을 받는다.³³⁾

이 구비전승의 핵심은 퍼렇게 녹핀 노인이 바람 부는 언덕길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설 속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산신령의 모습으로 등장 한다. 그런데 ‘녹핀 하르방’ 전설 속에 등장하는 노인은 “내 팔자가 하늬바람을 맞으면서 이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고집스럽게 똑 바라보는 눈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티어 서 있었다.” 채록된 시기가 다른(1957년 남원면 남원리 채록) 비슷한 내용의 구비전승에서도 노인은 바람 부는 동산에 서 있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바람 부는 곳 밖에는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요”라고 대답하였다.³⁴⁾

‘녹핀 하르방’ 전설 속에 묘사된 노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 부는 언덕위에 서 있는 것이 운명이다. 둘째, 눈이 고집스럽게 바라보는 눈을 하고 있다. 셋째, 녹이 퍼있다. 이 특성 중 녹이 퍼있다는 말 뜻은 일반적으로 쇠붙이가 녹슬었다는 표현이다. 사람에게 녹핀 노인이라 한다면 검버섯이 핀 노인이라는 뜻으로 불려진 것 같다. 그러나 구비전승 속에서 퍼렇게 녹핀 하르방이라 언급하고 있는 점을 보아 퍼렇게 이끼가 낀 돌하르방이 연상된다.

구비전승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전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존재한다. 시간이 흐르면 원래의 전설은 구전되는 과정 속에 많은 변형이 생긴다. 심지어는 본래의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附會되어 전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 속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 전설인 ‘녹핀 하르방’ 속에서는 하르방의 기원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33) 李琪亨, 「<제주도 전설> 녹핀 하르방」 『제주도』8, 1963, 141-147쪽. ‘녹핀 하르방’ 전설의 요약문은 정성권이 작성한 것을 재인용하였음을 밝힌다(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史學志』34, 檀國史學會, 2001, 79-80쪽).

34) 秦聖麒, 「녹핀영감」, 『南國의 傳說』, 一志社, 1968, 87쪽.

고집스럽게 똑 바라보는 눈을 하고 있는 ‘녹핀 하르방’은 이끼 낀 돌하르방일 가능성이 높다. ‘녹핀 돌하르방’이라는 전설은 실제 이끼진 돌하르방이 언덕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서 바람 부는 언덕위에 서 있는 석상은 주로 동자석만이 확인된다. 동자석은 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녹핀 하르방’ 전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동자석은 말 그대로 노인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크기 역시 작아 전설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녹핀 하르방’ 전설이 제주도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실제 등신대 크기의 석인상이 언덕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석인상은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이라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정현성이나 정의현성 돌하르방 중 일부는 원래 현성이 만들어진 후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만들어져 언덕위에 있던 것을 현성 완공 후 성문 앞으로 옮겨온 것일 수 있다.



〈그림 13〉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정면



〈그림 14〉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측면



〈그림 15〉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정면 〈그림 16〉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후면

필자는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일부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석상이며 ‘녹핀 하르방’이라는 전설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석상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진주 대아고등학교에서 발견한 석인상 때문이다. 진주 대아고등학교 교정에는 고려시대 석탑, 장명등, 문인석 등의 석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 중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매우 유사한 석인상이 1구 서 있다. 이 석인상의 총고는 70cm이며 어깨 폭은 40cm 이다. 이 석인상은 대정현성 돌하르방 보다는 작다. 하지만 전체적인 자세 및 세부 표현 등은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매우 유사하다. 진주 대아고등학교 교정 내에 있는 석인상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그림13~16)

첫째, 얼굴과 머리의 조각방법을 들 수 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얼굴 표면이 평평하게 조각되어 있다. 머리는 목을 조각하지 않고 턱이 가슴부근까지 내려오게 만들었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역시 얼굴 표면이 평평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턱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다.(그림9·13)

둘째,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에는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동일한 수인을 취하고 있는 돌하르방이 있다. 복신미륵과 비교했을 때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정현성 돌하르방 2기는 양손을 짝 편 채 서로 마주 테고 있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역시 두 손을 짝 편 채로 양손을 마주 테고 있다.

셋째,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팔뚝이 표현되어 있다.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경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팔이 마치 도포자락으로 덮어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경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깨부터 팔목까지의 표현이 ‘ㄴ’자 형태이다. 반면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깨부터 팔뚝까지 ‘ㄱ’자 형태로 조각되었다.

넷째, 유사한 복식 표현이 나타난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목 주변에 목을 한 바퀴 감싼 도톰한 목도리 같은 복식 표현이 있다. 이 복식은 턱 밑에서 한 줄의 세로선이 복식위에 그어져 있어 옷의 일부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돌하르방 중 대정현성 돌하르방 3기에서 이와 유사한 복식 표현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그림 17〉 대정현성 돌하르방
(2-43호)

민속자료 2-35, 2-41, 2-43으로 지정된 돌하르방의 목에는 다른 돌하르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목도리 같은 복식 표현이 있다.(그림9·17·24·26) 이 3기의 석상이 주목되는 이유는 목도리 같은 복식 표현 중 턱 아래 부분에 세로선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턱 밑, 복식 표현에 세로선이 그어져 있는 돌하르방은 대정현성 돌하르방 3기에서 모두 확인된다. 이 중 2기는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동일한 수인을 취하고 있다.(그림9·24) 석인상의 수인을 비롯하여 목을 감는 복식 표현과 턱 밑에 그어진 세로선은 세부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표현은 모방 과정 중에 생략이나 변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형이 가능한 조각수법이 제주도와 진주 대아고등학교의 두 석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석상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에는 복식표현이 있는 3기의 돌하

르방과 크기와 조각수법이 유사한 돌하르방이 1기 더 있다. 이 돌하르방(민속자료 2-42호)에는 복식 표현은 없지만 복식표현이 있는 3기의 돌하르방과 조성 수법이 비슷해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이 4기의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원래 바람 부는 언덕위에 서 있었던 돌하르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 내 석인상이 원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³⁵⁾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의 조성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석상이 15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이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비슷한 시기인 15세기에 조성된 석인상으로 보기 어렵다. 대정현성과 비슷한 형태의 돌하르방은 대정현성 성문 앞 12기 이외에는 제주도 내에서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제주도에서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정의현성 돌하르방으로 추정된다. 성문 앞을 지키는 돌하르방이 축성 직후에 만들어졌다면 정의현성(1423)보다 대정현성(1416)이 더 먼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의현성 돌하르방이 조성된 이후 제주도에서는 복신미륵, 동자석, 제주읍성 돌하르방 등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만들어진 이후 제주도에는 다양한 석인상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아고등학교 내 석인상과 유사한 형태의 석인상이나 동자석은 제주도내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비슷한 석인상이 어떻게 진주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의 모자를 통해서 이러한 의문점의 단초를 풀 수 있다. 이 석인상의 모자는 머리 뒷부분을 전부 가릴 정도로 크게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모자를 착용한 석인상은 한국의 다른 석인상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외래문화의 영향아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의 모자는 꼭대기에 장식은 달려있지 않지만

35)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진주시 인사동에서 '조선막사발'이라는 골동품점을 운영하였던 故 박창수씨가 대아고등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박창수씨는 진주를 비롯한 경남일대와 남해안 일대의 골동품을 주로 취급하였다고 한다.



〈그림 18〉 동몽골 지역 석인상



〈그림 19〉 동몽골 지역 석인상

기본적으로 원정모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는 높이가 낮고 챙 부분이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다.(그림 15) 이 형태의 모자는 제주도 돌하르방 중 모자의 높이가 낮은 대정현성 돌하르방 모자와 유사한 점이 있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의 모자는 원정모 형태인 점을 보아 기본적으로 몽골 복식의 영향 아래 조성된 석인상이라 할 수 있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의 모자와 비슷한 형태의 모자는 몽골 석인상에서 발견된다. 몽골 석인상은 몽골제국시기 13~14세기 조성되었으며 주로 동몽골 지방에서 발견된다. 현재까지 약 60여기의 몽골 석인상이 발견 조사되었다.³⁶⁾ 몽골 석인상은 전형적인 원정모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 같이 머리 뒷부분까지 높이가 낮은 모자를 걸쳐 쓴 형태가 존재한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모자의 테 두리 폭이 넓다. 이러한 형태의 모자는 몽골 석인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몽골 석인상에서 모자의 테를 두툼하게 튀어 나오도록 만든 것

36) 윤형원, G.에렉젠, 「몽골 석인상의 편년과 상징성에 대한 일고찰」, 『中央 아시아 研究』11, 중앙아시아학회, 2006, 204쪽.

은 털이 많은 동물의 모피로 테를 만들어 붙였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⁷⁾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이 몽골의 영향아래 만들어졌다면 가장 유력한 조성시기는 몽골군이 일본을 원정하기 위해 마산을 비롯한 경남 일대에 주둔한 13세기 후반경일 가능성이 있다. 여몽연합군은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포(마산)를 출발하여 일본 원정길에 올랐었다. 1차 원정군에 참여한 몽·한군의 규모는 25,000명에 달했으며 2차 원정에 참여한 병력은 4만에 달했다.³⁸⁾ 일본 원정기간 대규모의 몽골 출신 군인들이 일시에 합포 일대에 집결하였다. 합포는 일본원정의 출발기지였기에 원나라 군인들의 집결지가 되었다. 합포뿐만 아니라 창원, 고령 일대에는 몽골 군대가 장기간 주둔하며 가축을 방목하기도 하였다.³⁹⁾ 이렇듯 13세기 후반 경상남도 일대와 남해안 일대에는 몽골군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그들에 의해서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제주도 대정현성 석인상이 비슷한 모습으로 조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몽골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원정 실패 후에도 원군의 제주도(탐라) 주둔은 계속되었다. 원의 직할령이 되는 해(1273)부터 탐라에는 700명의 원군이 와 있었다. 제2차 일본정벌이 실패한지 3년이 지난 1284년에도 최소한 원군 400명 이상이 계속 탐라에 남아 있었다.⁴⁰⁾ 탐라에 주둔하였던 원나라 군대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탐라 주둔 원군들은 한 때 경남일대나 합포에 주둔하였으며 일본원정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대정현성 일대에서 세부 표현까지 유사한 조각상이 동시에 발견되는 이유는 결국 두 지역 모두에 주둔했었던 원나라 군인들이나 원나라 장인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탐라는 1273년에 원의 직할령이 되었다. 이 시기에 원은 탐라에 목장

37) 데 바이에르, 『몽골석인상의 연구』, 해안, 1994, 69쪽.

38) 盧啓鉉, 『麗蒙外交史』, 甲寅出版社, 1993, 206-216쪽.

39)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181쪽.

40) 金日宇, 앞의 책, 2000, 283-284쪽.

을 설치하였다. 탐라목장은 원제국 내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굳혔고, 시설과 운영인원 등의 규모 확대도 이루어 졌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마방목 등을 주관하는 직책명칭인 ‘하치(合赤)’로부터 유래했을 동·서 ‘하치’였던 탐라목장의 명칭이 다수의 ‘하치’가 소속하고, 우마 등의 월동시설도 갖추어진 牧舍를 의미하는 阿幕의 호칭이 붙은 동·서 아막으로 변했던 같다. 특히 동·서 아막이 각각 자리를 잡았던 성산읍 수산리와 한경면 고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우마 등이 크게 번식했다.⁴¹⁾

앞서 제주도 전설을 고찰할 때 ‘녹핀 하르방’이라는 전설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실제 바람 부는 언덕위에 이끼진 돌하르방이 서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바람 부는 언덕위에 서 있었을 돌하르방은 탐라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13세기 후반기에서 14세기 전반기 사이, 몽골간섭기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돌하르방은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유사한 복식을 하고 있는 3기의 대정현성 돌하르방일 가능성이 있다. 이 3기의 돌하르방과 더불어 복식표현은 없지만 조각 수법과 크기가 유사한 대정현성 돌하르방 1기(민속자료 2-42호)가 ‘녹핀 하르방’이라는 제주도 전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녹핀 하르방’과 같은 전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이러한 전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등신대 크기의 ‘녹핀 하르방’ 즉, 이끼진 돌하르방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녹핀 하르방’전설이 몽골간섭기 조성된 돌하르방과 관련 있을 가능성은 전설 내용을 통해서도 그 편린을 유추할 수 있다. ‘녹핀 하르방’ 전설에서 등장하는 나무꾼은 노인에게 대접하기 위해 개장국을 사들고 간다. 그러나 노인은 “나에겐 그런 음식이 별로 달갑지 않으나, 하여간 놓아두고 가시오, 멀찌감치.”라고 대답한다.⁴²⁾ 이 전설 속에서 ‘녹핀 하르방’은 개장국을 먹지 않는다. ‘녹핀 하르방’이 개장국을 먹지 않는 이유는 석인상이 몽골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석인상에 몽골인들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인식이 전설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녹핀 하르방’이 개장국을 먹지

41) 金日宇, 앞의 책, 2000, 334쪽.

42) 秦聖麒, 『녹핀영감』, 『南國의 傳說』, 一志社, 1968, 88쪽.



〈그림 20〉 동몽골 지역 석인상
(의자에 앉아있는 훈출로)

않는 것으로 묘사된 것이라 생각된다.

몽골인들은 개고기를 신성시하여 먹지 않았다.⁴³⁾ 유목민은 유목을 통해서 육류를 일상적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었다. 몽골인의 입장에서는 개를 통한 직접적인 단백질의 섭취보다 개를 유목에 도움을 주는 동물로 훈련을 시키고 단백질을 다른 동물을 통해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영양 섭취 방법이었다. 이에 반해 농경민족은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가 유목민족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가축의 일부분으로 여겨 이를 통한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러운 음식문화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금기시하는 몽골인들의 풍습이 특이한 것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결국 ‘녹핀 하르방’이 개장국을 먹지 않는 이유는 몽골 문화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고려한다면 바람 부는 언덕위에 서 있었을 이끼 낀 돌하르방은 몽골간섭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인들이 바람 부는 언덕위에 석인상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몽골인들의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몽골인들은 훈출로라 불리는 석인상을 초원위에 세우는 전통이 있었다. 몽골인들이 석인상을 세우는 전통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 간에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이다.⁴⁴⁾ 현재 몽골공화국 내에는 약 500기의 석인상이 분포해 있다.⁴⁵⁾ 이 석인상들 중 약 400여기는 돌궐시대에 조성된 것이다.⁴⁶⁾ 6~8세기 만들어진 돌궐

43) 안용근,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역사와 문화』, 『한국식품영양학회지』12, 한국식품영양학회, 1999, 389쪽.

44) 데 바이에르, 앞의 책 1994, 146쪽.

45) 데 바이에르, 앞의 책, 1994, 15쪽.

시대 석인상은 몽골 초원지대 전역에 고루 분포해 있다. 13~14세기 조성된 몽골석인상은 몽골공화국 동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훈출로라 불리는 13~14세기 조성된 몽골 석인상은 하반신이 표현되어 있으며 지물을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그림20) 이에 반해 제주도 돌하르방은 하반신이 생략된 채 상반신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몽골의 훈출로가 제주도 돌하르방의 원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⁴⁷⁾ 몽골 석인상 연구자인 데 바이에르 역시 몽골의 훈출로와 제주도 돌하르방의 유래가 하나라고 볼 수 없으며 어느 하나가 서로의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⁴⁸⁾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제주도 돌하르방이 몽골 석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주도 돌하르방 전체와 13~14세기 조성된 동몽골 지방의 몽골 석인상만을 직접 비교하여 친연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돌하르방과 동몽골 지역 몽골 석인상들만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차이점만을 강조하는 주장은 세계제국을 건설 하였던 몽골인들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몽골풍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을 들 수 있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몽골 석인상 모자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 모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석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몽골풍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몽골 석인상처럼 의자에 앉아있지 않으며 하반신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13~14세기 조성된 동몽골 지역의 몽골 석인상은 많은 수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석인상만 조성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몽골 석인상 66기 중 42기가 의자에 앉아 있으며 22기는 서있는 형태이다.⁴⁹⁾ 하반신 표현 역시 몽골 석인상 모두에서 표현된 것이 아니

46) 윤형원, G.에렉젠, 앞의 글, 2006, 201쪽.

47) 김유정, 앞의 글, 2007, 230쪽 : 김정선, 앞의 글, 2008, 33쪽.

48) D. Bajar, 「A Comparative Study of Jeju's Tullharubang and Mongol's Hunchclo」, 『몽골학』2, 1994, 194쪽.

49) 데 바이에르, 『몽골석인상의 연구』, 혜안, 1994, 100쪽.

며 일부는 하반신 표현이 생략된 것도 존재한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모자의 경우 몽골 복식을 모방하고 있으나 하반신이 생략되어 있는 모습은 돌궐 석인상과 유사하다. 특히 얼굴 전면이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는 점, 목이 생략된 채 얼굴이 몸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은 돌궐 석인상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⁵⁰⁾(그림21~23)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몽골 복식을 대표하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몽골인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제외한다면 몽골 석인상보다 돌궐 석인상과 더 유사한 점이 많다. 이는 13~14세기 동몽골 지역에 분포하는 몽골 석인상을 만든 장인들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을 만든 장인 계통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 알타이 지역
돌궐계 석인상



〈그림 22〉 알타이
지역 돌궐계 석인상



〈그림 23〉 알타이 지역
돌궐계 석인상

13~14세기 조성된 몽골 석인상 중 의자에 앉아 있으며 세부 장식표현까지 자세히 조각된 석인상의 경우 죽은 칸들이나 귀족들의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여겨진다.⁵¹⁾ 의자에 앉아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을 묘사한 몽골 석인상의 경우 전문 장인이 조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은 몽골 복식을 하고 있지만 칸이나 귀족을 조각한 장인과 비교했을 때 석인상을 만드는 전문적인 장인에 의해 만들

50) 돌궐 석인상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였다(林俊雄, 『ユーラシアの石人』, 雄山閣, 2005 ; Vladimir D. Kubarev, 『알타이의 제사유적』, 학연문화사, 1999).

51) 테 바이에르, 위의 책, 142쪽.

어진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아마도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을 만든 몽골인은 자신이 흔히 보았던 초원의 석인상에서 조성 동기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몽골간접기 때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4기의 대정현성 돌하르방을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동몽골 출신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4기의 대정현성 돌하르방을 제작한 사람들은 원나라의 탐라 지배시기 우마방목 등을 주관하는 직책인 하치(合赤)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치 또는 카라치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고창석의 연구는 주목된다. 고창석은 조익의 『二十二史劄記』와 『元史』권128 「土土哈傳」의 자료를 통해 하치가 킵차크인(欽察人)의 언어에서 유래했으며, 이것은 킵차크인이 대원황실의 마축을 관장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⁵²⁾ 이것은 이제까지 하치를 몽골인으로만 보았던 관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⁵³⁾

하치가 킵차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는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대정현성 4기의 돌하르방이 동몽골에서 발견되는 13~14세기 조성된 몽골 석인상과 닮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킵차크 칸국은 광대한 몽골제국의 서부지역으로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동유럽, 러시아 등을 포함한다. 현재 몽골공화국 내 발견된 돌궐석인상은 약 400여 기이다.⁵⁴⁾ 이 지역 이외에 몽골과 중국의 고산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알타이 지역에서도 수백기의 석인상이 발견된 바 있다.⁵⁵⁾ 몽골공화국 밖인 러시아의 투바 공화국 내에서도 많은 수의 석인상을 확인할 수 있다.⁵⁶⁾ 현재의 몽골공화국에서부터 동유럽 및 러시아 일대의 평원에는 많은 수의 석인상이 분포하고 있다. 이 석인상은 돌궐시대 석인상이 가장 많으며 위구르시대와 거란시대 석인상도 존재한다.⁵⁷⁾ 시대를 달리하는 유라시아 석

52) 고창석, 「원대의 제주도 목장」, 『濟州史學』 창간호, 1985, 8-9쪽.

53)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317쪽.

54) 윤형원 외, 앞의 글, 2006, 201쪽.

55) Vkadimir D. Kubarev, 『알타이의 제사유적』, 학연문화사, 1999, 19-20쪽.

56) 박원길, 「뚜바의 역사와 대외관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뚜바인의 삶과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5, 66-91쪽.

57) 윤형원 외, 앞의 글 2006, 203쪽.



〈그림 24〉대정현성 돌하르방
(2-35호)



〈그림 25〉대정현성 돌하르방
(2-37호)

인상들은 그 모양도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얼굴이 평평하며 머리와 몸통이 목이 없이 직접 연결된 채 서 있는 석인상이다. 주로 다리가 표현되지 않은 것이 많으며 몽골풍의 모자를 제외한다면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기본적인 형태가 유사하다.



〈그림 26〉대정현성 돌하르방(2-35호)
턱 밑 복식선, 허리띠 모습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를 처음으로 조성한 사람들은 하치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하치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통해 보았을 때 그들은 동몽골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4기의 돌하르방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보았던 유라시아 대륙 일대에 분포해 있는 수많은 석인상을 기본 모델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4

기의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13~14세기 조성된 동몽골 지역의 몽골 석인상 보다 돌궐 석인상과 더 유사한 점이 많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민속자료 2-35호로 지정된 돌하르방의 경우가 돌궐 석인상과 비교할 때 특히 주목된다.(그림24·26)

이 돌하르방은 복식 표현이 있는 다른 돌하르방처럼 목 주변에 목도리 같은 복식이 조각되어 있다. 민속자료 2-41, 43호 돌하르방의 복식은 양각으로 도톰하게 조각되어있음에 반해 이 돌하르방의 목도리는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목 주변의 복식 표현을 음각으로 한 예는 우리나라의 다른 석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해 음각으로 목 주변을 넓게 조각하는 방법은 돌궐 석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돌궐 석인상들은 허리띠를 착용한 것이 많은 편인데 대정현성 돌하르방 2-35호에서도 다른 돌하르방에서 찾을 수 없는 허리띠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6)

돌궐시대 석인상과 몽골석인상은 형태와 의자의 유무 등에서 차이는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원지대 위 돌무더기나 제사유적 주변에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초원지대 석인상을 만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풍토와 환경이 유사한 제주도에도 석인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석인상이 바로 몽골 복식을 하고 있는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유사한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로 볼 수 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바람 부는 언덕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은 석상의 받침과 크기, 조각 수법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제주읍성,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경우 대부분이 받침을 갖고 있으나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현재 받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대정현성과 같은 수의(12기) 돌하르방이 조성된 정의현성의 경우 10기의 돌하르방에서 지표상에 들어난 받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정현성 돌하르방에서는 현재 한 기의 받침도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오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 위치가 이동하여 받침이 분실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읍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 역시 위치가 이동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침을 갖고 있는 돌하르방이 더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받침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에

서 받침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처음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바람 부는 언덕위에서 옮겨왔기 때문일 가능성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언덕위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은 유라시아 대륙의 석인상처럼 처음부터 받침 없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후 대정현성으로 옮겨와 이를 모방한 돌하르방을 제작하였을 때 돌하르방만 조성되고 받침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평균 신장은 181.6cm이고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평균 신장은 141.4cm,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평균 신장은 136.2cm 이다. 제주읍성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경우 석인상의 크기에 편차가 존재하나 돌하르방의 크기에 따른 조각수법의 우열은 거의 없다. 이에 반해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크기에 따른 조각능력의 편차가 확연히 존재한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가장 작은 돌하르방(민속자료 2-37호)의 크기는 107.5cm이다.(그림25)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가장 큰 것(민속자료 2-41)은 양 손을 마주 데고 목에 복식 표현이 있는 것이다. 이 돌하르방의 크기는 150.5cm이다.(그림9)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복식 표현이 있는 3기의 돌하르방 신장 평균은 약 145cm이다. 복식 표현이 있는 돌하르방은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큰 편에 속하며 조각 수법도 우수하다. 이에 반해 복식 표현이 없는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크기는 대부분이 110~120cm 내외이며 조각 수법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복식 표현이 없는 돌하르방은 크기가 작으며 팔의 표현이 선명하지 않고, 어깨 폭이 좁은 경우가 대다수 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경우 제주읍성이나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다르게 크기에 따른 선명한 조각 수법의 우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성시기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시기의 차이에 따른 장인의 우열이 결국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조각 수법과 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가장 먼저 조성된 것으로는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유사한 복식표현이 있는 3기의 돌하르방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복식 표현은 없지만 돌하르방의 크기와 조각수법이 3기의 돌하르방과 유사한 대정현성 돌하르방(민속자료 2-42호) 역시 복식 표현이 있는 3기의 돌하르방과 거의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크기가 크며 조각수법이 우수한 4기의 돌하르방이 바

람 부는 언덕위에 서 있었던 돌하르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돌하르방의 기원은 진주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의 영향 아래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기의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몽골간섭기 대아고등학교 석인상을 만들었거나 이 석인상을 알고 있었던 원제국 사람들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풍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대아고등학교 석인상과 세부 표현까지 유사한 돌하르방이 대정현 일대에서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간섭기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4기의 돌하르방은 1416년 대정현성 축성과 더불어 성문 앞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8기의 석인상이 옮겨온 4기의 석인상을 모본으로 하여 추가로 제작되어 성문 앞에 각 4기씩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제주읍성이나 정의현성 돌하르방과 다르게 같은 지역의 석인상임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조각수법이 고르지 않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대정현성 돌하르방에서 확인되는 조각 수법의 우열은 조성시기의 차이에 의한 장인의 역량 차이가 뚜렷하게 돌하르방에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 돌하르방의 조성시기와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남방기원설, 북방기원설, 제주자생설 등 다양한 논의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의는 제주도 내 세 곳에 흩어져 있는 돌하르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본 글에서는 먼저 각 지역별 돌하르방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시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제주시내에 있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754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과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조성시기는 15세기 전반기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15세기 후반으로 건립시기 추정이 가능한 복신미륵을 통해 확인하였다.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주도내 돌하르방 중 건립시기가 가장

이른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분석과 ‘녹핀 하르방’이라는 제주도 구비전승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몽골간섭기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주 대학교등학교 석인상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복식 표현이 있는 3기의 돌하르방과 이와 조각수법이 유사한 1기의 돌하르방이 몽골간섭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은 북방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기존의 북방기원설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존 북방기원설은 제주도 돌하르방을 동몽골 스텝지역의 13~14세기에 조성된 몽골 석인상과 직접 연결시켰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돌하르방 기원을 유라시아 대륙의 돌궐계 석인상과 몽골풍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은 북방 유라시아 대륙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 돌하르방은 북방에 기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고유의 독자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처음 만들어졌을 4기의 돌하르방이 대정현성 축성 이후 성문 앞으로 옮겨 오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다. 초원위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은 대정현성이 축성된 후 성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았다. 정의현성이 축성된 후에는 돌하르방의 외형마저 대정현성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18세기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남단의 석장승 문화의 영향으로 준수하고 잘생긴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건립되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돌하르방은 유라시아 대륙에 기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체의 독자성이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朝鮮王朝實錄』

金錫翼, 『탐라기년』, 瀛洲書館, 1918.

김유정, 『제주 미술의 역사』, 파피루스, 2007.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2000.

盧啓鉉, 『麗蒙外交史』, 甲寅出版社, 1993.

淡水契 編, 『增補 耽羅誌』, 1954.

데 바이에르, 『몽골석인상의 연구』, 혜안, 1994.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 編著,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94.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李元鎮, 『耽羅誌』.

林俊雄, 『ユーラシアの石人』, 雄山閣, 2005.

이형상, 『남한박물』, 푸른역사, 2009.

Vkadamir D. Kubarev, 『알타이의 제사유적』, 학연문화사, 1999.

강윤희,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강진옥, 「전설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5, 한국구비문학회, 1997.

강창언의, 「제주도 石像에 관한 一研究」, 『濟州道史研究』7, 제주도사연구회, 1998.

고창석, 「원대의 제주도 목장」, 『濟州史學』 창간호, 1985.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병모, 「한국 석상문화 소고」, 『한국학논집』2,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金榮敦,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文化人類學』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_____, 「돌하르방」, 『朝鮮時代 濟州文物展』,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김용태, 「조선전기 역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朝鮮時代史學報』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3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김정선,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耽羅文化』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文基善, 「돌하르방의 美術解剖學的 研究」, 『제주대학 논문집』13, 제주대학교, 1981.

문현순, 「1450년~1460년대 紀年銘 아미타삼존불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 불교미술사학회, 2005.
- 박원길, 「뚜바의 역사와 대외관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뚜바인의 삶과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5.
- 梁浩一, 「濟州道 돌하르방의 形態 考察」, 『교육논총』12,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96.
- 유흥준, 이태호, 「미술사의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 열화당, 1988.
- 윤형원, G.에렉젠, 「몽골 석인상의 편년과 상징성에 대한 일고찰」, 『中央 아시아 研究』11, 중앙아시아학회, 2006.
- 이경화,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竝立像의 造成時期와 背景 - 成化7年 造成設을 提起하며」, 『불교미술사학』, 불교미술사학회, 2005.
- 李琪亨, 「<제주도 전설> 녹핀 하르방」, 『제주도』8, 1963.
-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史學志』34,檀國史學會, 2001.
- 정성권,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江原史學』9, 강원대학교 사학회, 1993.
-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 시기 -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청대사림』6, 청주대학교 사학회, 1994.
- 秦聖麒, 「녹핀영감」, 『南國의 傳說』, 一志社, 1968.
- 한기선, 「조선조 세종의 抑佛과 信佛에 대한 연구」, 『홍익사학』3, 홍익대학교사학회, 1986.
- 鉉容駢, 「濟州石像 ‘우석목’ 小考」, 『제주도』8, 제주도청, 1963.
- D. Bajar, 「A Comparptive Study of Jeju's Tulharubang and Mongol's Hunchclo」, 『몽골학』2, 1994.

Abstract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Dolhareubang in Cheju Island

Jeong, Seong-Kwon*

On Cheju Island, the largest island in Korea, there are stone statues called Dolhareubangs. These statues are scattered in three areas of the island. Today, only 47 Dolhareubangs remain. The Dolhareubang is a popular icon symbolizing Cheju Island. However,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over where the Dolhareubang originated. Currently, there are three theories regarding its origin: the south, the north, or Cheju. These arguments are based solely on historical backgrounds and anthropological analyses, with no analysis of the Dolhareubangs' characteristic styles.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no decisive conclusions regarding the origin of the Dolhareubang .

This paper analyzed the style characteristics of Dolhareubang s scattered across three areas of Cheju Island. It also estimated the time when a stone Buddha statue called Pokshin Maitreya was built. Pokshin Maitreya is the largest stone statue of a standing Buddha in Cheju, and its style characteristics allow us to trace back to the time when it was built. Through Pokshin Maitreya and literary sources, I identified that, of all the Dolhareubangs existing in the island, those in Dolhareubang (Daejeong-hyeon, or Daejeong-county Fortress) are the oldest. Thus, this

* Lecturer, Art History Department,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aper assumes that it is very likely that 4 out of the 12 Dolhareubangs in Daejeonghyeonseong were made by Mongols during the 13th century Mongol Occupation Era in Korean history. This assumption is backed by the fact that the costumes of these Dolhareubangs are in Mongol style—similar to the costume of the stone statue located in Taea High School in Jinju City, Gyeongnam Province. Through such analys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origin of Dolhareubangs in Cheju Island can be traced back to the Eurasian continent.

Key Word : Dolhareubang, Cheju Island, stone statue, Mongol, Kipchak Khanate

교신 : 정성권 38066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123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E-mail: zorba0829@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5. 08. 30.

심사완료일 2015. 10. 12.

게재확정일 2015. 10. 17.